청호나이스 정수기도 중금속 검출

회사측 가까이 조치 안 취해… 소비자 불안감 증폭

최근 국내 유명 회사들의 얼음 정수기에서 중금속 이물질이 연이어 검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검출된 이물질의 유해성 여부가 아직 가려지지않은 가운데 상당수 소비자들은 "유명 제품 정수기라도 이젠 믿을 수 없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촉발된 정수기 중금속 논란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로 인해 더욱 커져가는 양상이다.

청호나이스 정수기 중금속 논란은 지난 5일 '이과수 얼음냉온정수기 티니 UV 알파' 제품에서도 금속물질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한 방송 보도로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번지기 시작했다.

중금속 이물질 발생을 제보했던 해당 소비자는 이미 지난해 8월 얼음 사이 사이에서 금속 가루를 발견, 청호나이스 측에 민원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그러나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코웨이 정수기 사태이후 연이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문제도 불거지자 회사 측은 뒤늦게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이석호 청호나이스 대표 외 임직원 일동 명의로 된 해명서를 통해 회사 측은 "최근 당사의 일부 얼음정수기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와 관련,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내부 정밀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 소비자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안진수 기자

다양한 래시가드 한눈에 최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래시가드 패션쇼가 열렸다. 래시가드는 피부를 햇빛이나 마찰로부터 지켜주는 수상스포츠 전용 운동복으로 최근에는 휴가철에 수영복 대신 래시가드를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홈플러스, 먹거리 · 여름용품 할인

집에서 바캉스 즐기는 고객들 위한 '홈캉스' 행사 4주간 진행

홈플러스가 집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고객들을 위한 '홈캉스' 행사를 실시한다.

홈플러스의 홈캉스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겨냥해 총 4주간 진행되며, 첫 주차 행사는 20일까지 실시한다. 우선 집에서 시원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가전제품을 준비, 냉방가전과 빙수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 '에어컨 특가전'을 비롯해 '유파 30cm 기계식 선풍기' 2만4900원, '한일 선풍기'를 5만9000원에 선보인다.

빙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클래식 빙수기' 1만2500원, '겨울왕국 빙수기' 1만5900원, '아이엔에스 각얼음 빙수기'를 2만9900원에 판매한다. 스페인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인 'DULCET(둘셋) 아이스크림' 8종을 개당 5000원에 판매해 고급 디저트 카페 부럽지 않은 여름 디저트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게 했다.

도심 인근에 마련된 야영장에서 휴가를 즐기는 캠핑족을 위한 각종 캠핑용품을 마련, '바스켓 그릴' 9900원, '더블에어베드' 1만9900원, '접이식/플래그체어(종류별)' 1만5900원, '아이스박스(11L)'를 1만9900원에 판매한다.

또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철 농어회(중국산/팩/취급 점포에 한함)' 1만4900원, '프리미엄 국산 민물장어&블랙타이거 새우초밥(10입/동김해점 제외)' 7900원, '셰프두 미리 닭강정' 1만2900원, '국내산 냉장 삼겹살/목심(100g/서귀포점 제외)' 1590원, '냉장 꽃갈비살(미국산/100g)' 3990원, '모둠 부어스트 소시지(840g/팩)' 1만1900원, 세계맥주는 4캔(대)/5병당 9800원에 선보인다.

대형마트로 피서를 오는 고객들을 위해 홈플러스 몰(Mall) 입점업체들과 '의류 브랜드 대전', '코스메틱 브랜드 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전을 진행하며, 식당가에서는 각종 여름철 대표 요리를 선보여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더불어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올빼미족을 위한 '야호세일'을 진행, 밤 9시 이후에 홈플러스 매장을 방문할 경우 훼밀리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해피콜 프라이팬/궁중팬(28cm)', 'CJ/동원 도시락김(20봉)', '광동 얼려먹는 비타500(종류별/교차 구매 가능) 1+1', '나이키/아디다스 스니커즈 양말(3족)'을 10% 추가 할인해준다. /안진수 기자

한국도로공 전북본부, 지역아동센터 아동 초청 부여군 일대 탐방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문명국)는 지난 15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초청, 부여서동연꽃축제 및 부여군 일대를 탐방하는 'EX행복원정대' 1차 원정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도공 전북본부 봉사단과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을 통해 추천받은 조은·꽃밭정이지역아동센터 아동 40여명이 참여했다.

체험은 도공 전북본부 교통센터 및 여산(천안)휴게소 견학과 휴게소 음식체험, 부여서동연꽃축제와 부여박물관 관람, 백마강 유람선 탑승, 부소산성을 방문 등으로 진행됐다.

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1차 원정을 시작으로 8월 무주반딧불축제, 9월 김제지평선축제 등과 연계한 지역문화원정을 실시, 취약계층 아동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3D프린팅 활용 '맞춤형 인테리어 소품 교육생' 모집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3D프린팅 활용 맞춤형 인테리어 소품 및 조명 제조 창업교육생'을 모집한다.

'3D프린팅 활용 소품 및 조명 제조 창업과정'은 전통적인 제조업과 달리 소규모 자본과 숙련된 노동인력 없이 창조적 1인 메이커 창업이 가능하다는 3D프린팅의 장점을 활용한 교육이다.

교육은 7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17일, 70시간 동안 진행된다.

참여대상은 도내 예비 창업자와 소상인으로서 20명을 선발한다.

교육과정은 '필수과정, 이론·실습, 워크숍' 3단계로 구성되며 기업가 마인드 제고부터 3D프린팅 실습, 비즈니스 모델링 수립, 마케팅, 현장상담까지 창업에 필요한 분야다.

특히 이번 교육을 참여한 사람은 안정적인 창업시장 진입과 정착을 위해 전라북도가 수료특전으로 창업자금 특례보증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주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사업사업화 교육을 수료한 예비창업자 150명을 선발해 신사업사업화 정부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2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홈페이지(www.jbba.kr) 또는 전화(063-711-2051~2)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기자

남원국토사무소, 불법시설물 정비

10월 31일까지 특별대책반 운영

남원국토사무소는 전북 동부권 국도변 불법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소장 장복수)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국도변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한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정비 대상은 현재 국도변에 무단으로 설치돼 있는 노점상, 불법 표지판 및 현수막 등이며 남원국토사무소가 관할하는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6개 시·군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다.

특히 과일농가가 많아 농산물 가판대 등 불법시설물 설치가 우려되는 장수군과 무주군 국도변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교량 하부 및 통로암거 등 도로구조물 내의 공사자재 방치와 불법주차, 볏짚 적재 등의 불법시설물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정비에 나선다.

남원국토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시설물 정비를 통해 국도를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함께 자치단체 등과 국도변 폐도부지 등에 농산물 공동 판매장 등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여름휴가 농촌여행 사진공모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여름휴가 두근두근 농촌여행 사진공모'를 이달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추진한다.

공모사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2016년 8월 18일까지 여름휴가 기간 중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여행하고 찍은 사진이다.

공모 부문은 식재료, 식사모습, 농촌경관, 체험프로그램, 숙박장소 등 농촌여행에서 겪은 사진이면 가능하다.

작품 응모는 농촌체험관광포털 '웰촌'(www.welchon.com)에 등록하면 된다.

수상작 선정과 시상식은 9월 중에 있을 예정이며 대상 1점, 최우수상 부문별 1점, 우수상 부문별 1점, 입선 부문별 5점 등 총 29점을 대상으로 총 1,000만 원(대상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농촌여행만의 다양한 매력이 담긴 사진을 공모해 농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됐다"며 "많은 도민이 참여해 농촌여행의 즐거운 추억을 오래도록 기념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과도한 보증료율 책정해 수익 챙겨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을 상환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사업'에서 아파트 분양계약자에게 받는 보증료율을 높게 책정해 과도하게 보증료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2012년 1월 주택구입자금보증사업의 보증료율을 결정할 때 과거 운용실적 자료가 없어 예상손실률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최대 대위변제율(보증사고액 대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금액 비율)과 손실률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보증료율은 0.17~0.25%로 정해졌다.

HUG는 대위변제율을 주택분양보증 최대치인 40%를 적용하고 손실률도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의 손실률(45%)을 적용했다.

감사원은 "이를 운용하면서 실제 발생한 대위변제율과 손실률을 반영해 산정한 예상손실률이 처음에 추정해 적용한 예상손실률과 차이가 크다"며 "실제 수치에 맞춰 보증료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UG는 지난 2014년 6월과 10월 두번에 걸쳐 보증료율 인하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금액을 모두 회수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보증료율을 조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HUG 관계자는 "과다한 주택구입자금보증의 보증료율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진수 기자